

도내 작은학교 학생들, 전북현대 경기 관람

경기장에서 꿈·추억 키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학생들의 문화·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축구 경기 관람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도내 작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전북현대와 대전의 경기를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현대모터스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작은학교 프로축구 경기 관람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3개 기관은 학생 수 30명 이하의 도내 작은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전북현대 홈경기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는 장수 계북중·계남중, 임실 청웅중·삼진중 학생과 교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함께 응원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사업 참여 기관들은 학생들의 경기 관람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학교와 경기장을 오가는 45인승 전용버스를 제공해 이동 부담을 덜었고 전북현대는 단체 관람석과 함께 도시락, 간식, 구단 기념품을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람 티켓과 스포츠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며 "우리 학생들이 전북현대 홈구장인 전주상에서 마음껏 응원하며 스포츠가 주는 건강한 에너지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도내 작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전북현대와 대전의 경기를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작은학교 대상 '프로축구 경기 관람 지원사업' 큰 호응

천호성 교육감, 현장 찾아 응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협력도 논의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관람에 앞서 천 교육감은 이도현 전북현대모터스 단장과 만나 '지역사회 연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양측은 지역의 체육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천 교육감은 "지역의 우수한 체육 자원과 전문 인프라가 교육과 결합할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전

북현대가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도현 단장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단의 인력과 시설을 적

극 지원하겠다"며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지역 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현대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 협의를 거쳐 지역 체육자원 연계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는 22일 오후 3시 무주군청에서 양오봉 총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전북대, 무주군과 협약 맺고 전략산업 기반 공동사업 추진

최근 지자체 및 지역대학들과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위한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2일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잇단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북대는 이날 오후 3시 무주군청에서 양오봉 총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로봇과운드리와 그린수소시스템, 농생명·바이오, AI,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전북대의 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와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AI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군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AI 융합 연구 및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성장동

력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과 운영, 성과 평가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이 협약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은 대학의 혁신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교육, 청년의 미래를 함께 바꾸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라며 "무주군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식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청년이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이번 협약은 무주군의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과 무주군의 지역자원을 결합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무주=손홍기 기자

MZ청렴 서포터스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젊은 교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2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MZ 청렴 서포터스는 젊은 교직원의 시각에서 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청렴 거버넌스 조직이다.

올해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연구사 1명, 교원 9명, 일반직 공무원 7명 등 모두 17명이 선발됐으며, 이날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참석자들에게 젊은 공직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적극적인 청렴 정책 제안과 실천을 당부했으며,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청렴정책담당 사무관이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서포터스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포터스는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온라인 소통을 병행하며 다양한 청렴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은 △세대 공감형 청렴 캠페인 △청렴 누리문화제 및 상호존중의 날 청렴사업 기획 △맞춤형 청렴홍보 콘텐츠 발굴·운영 △청렴문화홍보 캠페인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서포터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발대식을 계기로 MZ세대 공직자 중심의 청렴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MZ 청렴 서포터스의 활동은 전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학부모회 활성화·정기 소통체계 구축 논의

천호성 교육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와 첫 간담회... '함께 만드는 전북교육' 공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천 교육감이 22일 교육감실에서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 발전 방안과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도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간담회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학부모회 활성화와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확대 △교육청과 학부모회 간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또한 학부모회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교육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과 공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천호성 교육감이 22일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 발전 방안과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 현안이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교육 주체이자 동반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순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장은 "학교와 가정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위해 학부모회도 책임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은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 가능한 모델로 구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전문가들의 심사와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보완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캠프 기간에는 구독자 600여명을 보유한 IT 크리에이터 '조코당(본명 조동근)'의 특별강연도 마련된다.

/오상근 기자

현장 중심 사회복지 전문가 키운다

우석대, 사랑기움 주간보호센터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가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손잡고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21일 사이버평생교육원과 아동·사회복지학부가 사랑기움 주간보호센터와 사회복지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우석빌딩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이정환 사이버평생교육원장과 박신애 아동·사회복지학부장, 안대섭 사랑기움 주간보호센터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복지 분야 교육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인적·학술 교류,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으로 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천형 사회복지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공동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 역량과 복지기관 현장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지역 학생 성장·촉촉한 돌봄체계 조성

임실교육지원청, 지사협과 협약 체결... 함께돌봄네트워크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과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촉촉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실교육지원청은 22일 청사에서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학생맞춤 통합지원 함께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심리·정서·건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대상 학생 조기 발굴 △교육·복지·심리·정서·건강 분야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복지 자원 발굴 및 지원 △위기학생 지원

협력체계 구축 △학생 지원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유한 다양한 민·관 복지자원과 교육지원청의 학생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효선 교육장과 박세근 임실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민간위원장, 12개 읍·면 민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오상근 기자